

거룩한 국가

핵심 구절: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9:6

선택된 성경 구절:

출애굽기 18:12-27; 19:1-14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율법의 지시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명시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지만, 그 계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위치도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과 분리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위대한 율법가에게 오늘 공과의 첫 부분에 담긴 시의적절한 조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8:12-18). 모세는 열심히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 했지만, 무관심한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은 모세가 모든 사소한 어려움을 듣고 판단하느라 불필요하게 자신을 지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효율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돌보기에는 그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한 조언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와 높은 의로운 원칙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사위에게 여러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또는

재판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조언했으며,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지 않은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듯이 불의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인격은 축복이 아니라 국가에 저주가 될 것입니다.

19-27절

이스라엘의 이 '유능한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 장로들, 즉 대표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어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성 6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37). 이는 여성과 어린이까지 합치면 총 10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겪게 될 문제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인터넷 등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잘 조직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9:8